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m갤러리 | 갤로그 |

dcinside.com 갤러리

갤러리 & 통합검색

갤러리

m.갤러리

갤로그

뉴스

이벤트

만두물

디시위키

어제 846,18

공익 갤러리

연관 갤러리(1/5) | 갤주소 복사 | 차단설

최근 방문 갤러리

공익

안녕하세요 마스크 공익입니다.(해명문)

마스크공익(223.197) 2019.12.31 18:40:42

조회 1397

먼저 감사의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에게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일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대충 아실 겁니다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인 공무원을 용서? 하면서 일이 한 단락 되는 것 같더니 동사무소 직원들의 저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트리고 다녀 이 애 해명글을 썼습니다. 먼저 인터뷰를 토대로 해명을 하였습니다. 인터뷰에는 1: 마스크 업무를 주면서 저에게 다음 주까지 하루에 10%씩 하면 된다며 기한을 명확히 주셨습니다. 2:그리고 마스크 분류 업무를 도와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셨습니다 오히려 현역 친구를 불렀음 예도 하나도 도와주시지 않으셨습니다. 3:마스크 업무를 하는 도중에 다른 업무를 시키지 않았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마스크 업무를 하는 동안 개인 정보가 담겨있는 종이 등등을 스캔 시키는 업무 시키고 파쇄기에 담겨있는 종이를 갈아끼우고 청소를 시키는 등 다른 업무를 시켰습니다. 4:허리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가는 일은 시키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사진 몇 장을 가져 왔습니다.

5:11

LTE

메모



5:10

LTE

< 메모



< 1



기초수급자한테 줄 김치 옮길때도 몇몇
집에서 거동불편하시부 내가 직접 들고

남자직원들이 없어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김장한다고 책상무거운거 옮길때
나시켰는데?

오후 12:22



뭐? 남자직원이없어서 도와달라고?

해줬는데 뭐? 시킨적이없어?

오후 12:24

김장 먹자고 했지 근데 왜 내가 거부했겠
냐?

기자의 지친조취자에서 하는데 이거 내







제가 모든 사진을 가져오진 못했지만 허리에 부담 가는 업무를 시키신 적이 무척 많았습니다. 제가 허리가 아파서 공익을 왔음을 알면서 저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허리에 부담 가는 업무를 “남자 직원이 없으니 공익 써가 해줘요”라는 식으로 저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가 밥을 같이 먹자고 하자 그런 걸 왜 먹나라도 말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저의 동사무소가 “기초수급자”들에게 나눠드릴 김치를 중금속이 푹푹 날리는 지하주차장에서 김장을 하는 사진입니다 직접 보시면 당연히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장을 하는데 필요한 무거운 책상들 재료를 옮기는 일을 허리가 안 좋은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5. 병가에 제한을 둔 적이 없다.



9월 15일 (일) 오후 4:25

주사님 내일 병가써도 됩니까?

쓰는건 상관없는데 너무 너 너무 병가가 많은 거 아닌지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워낙몸이 안좋아서 ㅠㅠ

12월 4일 (수) 오전 8:12

요청

2. 근무지 담당자가 해당 근무지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사람(관장)한테 허가 요청

3. 관장으로부터 승인 받은 후 근무지 직원이 시청 사회복무요원 담당 공무원에 연락(저의 경우 두번째부터 근무지 직원분이 귀찮아 해서 제가 직접 시청에 연락..)

4. 시청 사회복무요원 담당 공무원이 해당 지역 관할 병무청에 해외여행 허가 관련 서류 전달

5. 해당 지방병무청에서 서류 확인후 카카오톡으로 허가 메시지 or 서류보완 메시지 전달

* 급하게 처리해야 할 경우 미흡한 서류 해당 지방병무청에 제출 후 민원실로 전화하여 빨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ㅇㅇ(58.148)	않ㅋㅋㅋ 읽히노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 - dc App
ㅇㅇ(106.255)	뇌가 제기능을 못해서 못읽는거겠디 뇌하수체 공해쫌?
ㅇㄴㅁㅇㅁㅇㅁ(1.230)	-P-